

“즉각 방송중단” “재발방지 먼저”... 얼굴 붉히며 거센 설전도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피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 판문점에서 24일까지 사흘째 '사생 결단'의 담판을 계속했다.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재개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남북 고위급접촉이 이어졌다.

앞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날 새벽 4시15분까지 거의 10시간에 걸쳐 1차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사흘째 밀고당기는 지루한 마라톤협상이 지속됐다. 과거 남북간 협상은 밤을 새우는, 이른바 '무박 2일'의 협상은 다반사였지만 두 번째이나 밤을 꼬박해가며 사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인 것은 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치열함을 방증하는 셈이다. 북측은 심각한 체제위협과 이른바 '최고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과 확성기 철거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로 재개된 것인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차 접촉은 물론 2차 접촉에서도 회의를 거듭하는 한편 때로는 남북 간에 얼굴을 붉히며 거센 설전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급한 사안인 남북간 군사적 위기해소를 위한 해법 논의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 천안함 폭

모든 현안 논의 물러코스터 분위기

金-黃 별도 공간서 일대일 독대

협상 스톱 서울·평양 훈령 대기도

침에 따른 5·24 조치 등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북간 현안이 논의되면서 협상 분위기도 '업 앤 다운(up and down)'을 거듭하며 물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벌어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우리 측은 북핵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간 일대일 수석대표 접촉도 협상장이 아닌 평화의 집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협상장에서의 남북간 접촉은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협상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별도 공간에서의 접촉은 완전 비공개로 열리는 것이다.

양측이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발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멈춘 채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부터 협상 방향을 직접 지휘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사흘째 지루한 협상을 벌였다. 남북이 사흘째 만난 것 자체가 일부 진전이 있었던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



논산 임영장병 결연한 거수경례 북한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한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2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임영행사가 열렸다. 임영 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朴대통령 “北 사과 안하면 확성기 방송 지속”

대북 원칙론 고수... “남북 협상 합의 마무리 위해 계속 논의 중”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피하기 위해 피 말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구축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때론 반복되는 도발과 불완전한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감을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가 형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보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노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악순환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끊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

며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원칙론에 대해 '과도한 원칙주의', '소모적 기싸움'이라는 지적보다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점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철학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이른바 '2030세대'의 강경한 대북 여론이 청와대의 엄중함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접촉 수석대표의 '격(格)'이 우리 측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측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맞춰진 것도 상식 및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통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접촉 성사과정에서 애초 북측은 애초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김 안보실장 앞으로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황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단호한 응징” 새정치 “끈질긴 대화”

박지원 “포괄적 접근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이틀 밤샘 협상이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안보의 벽은 높게 쌓고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 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이 고위급 접촉 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강력응징론’을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의 남북 고위급 협상과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통(通)’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회’를

이날부터 가동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본격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머칠 더 걸리더라도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사과를 받는 일에 너무 자중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잠수함 침투 가능성”... 전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전남도는 24일 이낙연 지사 주재로 제31보병사단장과 제3함대사령관,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도발 대응 영상 통합방위협의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이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전시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해안선이 길고 섬이 많아 잠수함 침투 등에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며 “현재 대처 중인 국가사태가 나의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안보에 기민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남도는 북한의 잠수함 식별과 신고 요령을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사단은 한빛원전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1개 중대를 원천에 배치했다. 또한 적 침투가 예상되는 5개 지역 경계를 주력하기로 했다. 3함대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협력해 해상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과 유인비어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399,000원

[특전] 카마도지옥 온천 계란 1개 증정, 족욕 체험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일본 8만개 신들의 고향 하치만군의 본사가 있는 우사신궁 관광 ▶ 일본 자연유형재해지 유노하나 관광 ▶ 일본 최대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벵부 지옥온천 카마도 지옥 ▶ 전통 민예촌거리, 긴린코 호수 자유시간 ▶ 아미가세 고급 펜션(2인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지옥폭포 관광 ▶ 태재부 천망공 관광 ▶ 베이사이드 하카타 타워 ▶ 오로리공원 일본정원 관람 ▶ 후쿠오카 시내 캐널시티 개인 자유시간 ▶ 자연사 박물관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 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일본 3대 아케오로 불리는 시라쿠아마 아케오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토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칸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모도리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송달,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르 ▶ 일본 3대 아케오로 불리는 시라쿠아마 아케오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포함사항 국세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경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펜션(2인실) 또는 호텔(2인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석당 여행자보험.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왕복 수송
- 공통불포함사항 싱글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 에어텔(기타큐슈 비즈니스호텔 1박+항공) 3일&4일 269,000원~
- 기타큐슈/히라오다이 올레길 3일 529,000원~
- 오이타/오쿠보 올레길 4일 769,000원~
- 야마구치 조요C.C 골프 3일(36H) & 4일(54H) 4일 779,000원~